

尖端産業 先進國으로 바뀌는 日本의 海外投資

1. 自動車제치고 半導體 電算機 通信이 主軸으로

半導體, Computer, 通信 등 Electronics를 中心으로 한 日本의 高度 尖端技術分野의 海外 直接投資가 급증하고 있다. 美國의 폭발적인 OA 붐·通信自由化 등에 따른 Electronics 分野의 海外投資는 지난해 自動車를 누르고 製造業分野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여 日·海外投資의 主役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High Technology 海外投資는 과거 日本의 海外投資 패턴과는 달리 先進國 集中現象과 함께 東南亞에서의 철수 움직임까지 수반하고 있어 注

目を 끌고 있다. 이와 같은 趨勢는 당분간 加速化될 것으로 보여 尖端技術移轉 등 보다 높은 次元의 對日協力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이에 관한 最近動向을 게재한다. 本橋는 11月 日本經濟新聞에서 整理한 것인바 과거 家電 製品分野에서의 例처럼 日本의 歐美移轉과 歐美의 東南亞移轉이 또 한번 되풀이 될 조짐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參考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東南亞離脫·美國偏重 두드러져

日本이 1983년에 행한 海外直接投資는 81億 5,000萬弗로서 과거 最高를 기록했던 1981년에 육박하는 높은 水準을 보였다. 日本의 海外直接投資를 이처럼 끌어올린 요인을 日本 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地域別 要因：先進國에 대한 投資가 前年比 25%나 늘어 과거에 볼 수 없는 最高値를 記錄.

●産業別 要因：製造業의 增加가 두드러진 가운데에서도 특히 前年比 88%나 늘어나 自動車를 제치고 1位로 올라선 電機産業.

지금까지 日本의 海外投資는 纖維, 家電, 石油化學, 資源에너지 개발 등 産業分野였는데 지난해 경우 이른바 High Technology業種의 대표격인 電機 및 Electronics로 그 主役이 완전히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그 投資性向도 과거의 東南亞 위주에서 先進國 특히 美國偏重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電機業界의 1983年度 海外投資는 對美國이 前年比 2.5倍로 크게 늘어난 반면 東南亞에 대한 것은 現象維持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累計殘高도 東南亞比重이 급속히 저하되어 1983年末 현재 24%까지 내려갔다.

日, 電機業界 對外 直接投資 推移

(殘高基準：百萬弗·%)

區分	北 美		亞 細 亞		歐 洲		其 他		合 計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80,3	495	39.0	473	37.2	72	5.2	230	18.6	1,270	100.0
'81,3	662	41.9	544	34.5	127	8.0	246	15.6	1,579	100.0
'82,3	991	48.2	601	29.2	173	8.4	290	14.2	2,055	100.0
'83,3	1,141	49.1	643	27.7	226	10.0	312	13.2	2,322	100.0
'84,3	1,509	53.4	688	24.4	294	10.4	333	11.3	2,824	100.0

(註) 日本 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 調査

그러나 美國은 53%, 歐洲 10%로 그比重이 급변한 增加現象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貿易摩擦을 회피하기 위한 現地生産, 商品高度化에 따른 Software의 現地供給 必要性, 生産高度化에 따른 技術人力 등 現地基盤 活用, 東南亞의 人件費 昂등 등이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80年代에 들어선 후 日本 電機業界의 地域別 對外 直接投資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日, High Technology業界의 對外 投資 패턴

그러면 日·電機電子業界의 對外投資 패턴 推移와 그 내용을 主要 業體別로 알아본다.

1) 富士通

富士通 Singapore은 지난 1973年 電子部品 製造를 시작한 이래, 順調롭게 발전, 종업원도 3백명을 넘어섰으나 최근 들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現地經營陣으로부터 本社로 거듭 보내지고 있다. 人件費의 昂등이 經營惡化의 이유인데 本社側은 雇傭問題, 日·싱가폴 關係 등을 고려, 現狀維持를 강력히 促求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호소가 Malaysia의 富士通 Components Malaysia에서도 提起되고 있어 富士通 經營陣들은 東南亞 對策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東南亞와는 對照적으로 富士通은 올해 들어 美國에 巨額의 投資를 계속하고 있다. 3月 Texas州 Dallas에 光通信機器工場을 完成, 操業에 들어간 것을 비롯 4月에는 資本提携先인 Amdhal社 株 約 460億엔어치를 더 사들였으며 9月에는 Oregon州에 400億엔을 投入 256Kbit 超LSI Memory와 磁氣Disk裝置를 生産하는 2個工場을 건설기로 결정했다.

富士通 America의 增資 등을 포함하면 겨우 6개월만에 近1千億엔의 對美 投資를 施行하거나 결정한 셈이다.

富士通의 海外投資는 1984年度에 들어 단순히 加速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日本國內 및 海外子會社·關聯會社에 대한 投融資는 例年の 4~5倍인 約760億엔으로 激増할 展望인데 그 중 約500億엔이 海外分이고 그 90%가 美國쪽

이다. 이 결과 85年 3月末의 子會社·關聯會社에 대한 投資殘高는 2,200億엔에 이를 것이고 이 가운데 海外殘高는 전체의 55%에 달하게 되어 처음으로 國內分을 웃돌게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富士通의 海外事業은 輸出을 포함하더라도 賣出全體의 30% 水準으로 50%가 넘는 SONY에 比한다면 이제 初入段階라는 것이 富士通側의 見解이다.

2) 日本電氣

日本電氣도 美國·歐洲 등 先進國對象 投資가 加速化되고 있는 반면 東南亞·中南美 對象 投資는 停滯를 빚고 있다. 특히 지난 3~4年 사이에 이 경향은 현저히 표면화되어 왔다. 半導體, Computer, 通信으로 대표되는 High Technology 分野만 보더라도 美國에 約400億엔을 投入, 半導體 第2工場, Computer, 通信 등 3個工場과 英國에 200億엔을 投入하여 半導體工場을 建設(計劃포함)하였다.

日本電氣의 海外投資殘高에 占하는 先進國과 開途國의 비율은 80年度末에 거의 1對1로 均衡을 보였으나 겨우 3年 뒤인 83年度末에는 2對1로 格差를 보이고 있다. 海外子會社가 資金自己調達로 施行한 設備投資 등을 포함하면 이 比率는 4對1 程度가 될 것이라는 見解도 있어 日本電氣의 海外投資도 尖端製品의 先進國 立地型이 완전히 정착된 느낌을 주고 있다.

3) 三菱電機

三菱電機는 최근 對美 輸出 急増으로 摩擦이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든지 現地生産 移行이 가능토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三菱電機의 Personal Computer, Floppy Disk裝置 輸出은 近年 들어 每年 倍増하고 있어 만일의 輸出規制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이다. High Technology 分野의 海外投資가 先進國에 集中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美國의 通信機市場이 日本의 10배나 되는 등 先進國市場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도 있으나 이처럼 貿易摩擦에 대한 대비가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고 있다. 이밖에 三菱電機는 작년 Canada에서 Braun管工場을 買入, Keyboard를 붙여서 PC用 Display裝置로 加工, 美國에 輸出하기 시작하였다.

4) 沖電氣工業

對美輸出이 급증하여 지난해輸出이全體賣上의 30%를 넘어서게 된 沖電氣工業도 30%라는數字는 危機라인에 가까와 일단輸出에 문제가 생길 경우 經營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는 이유에서 美國에 1,000萬弗을 投入 서둘러 電子交換機工場을 완성시켰다.

이밖에 日立製作所·東芝 등도 半導體, Computer 周邊機器, 通信의 海外投資는 거의가 美國, 歐洲를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Kyocera, 住友電氣工業 등이 研究開發센터를 建設, 現地技術者를 고용하여 研究開發投資를 投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도 거의 美國이다.

日, 電子 主要 各社의 尖端部門 海外投資
(1980年以後分)

□ 日本電氣

- '80: 半導體(英國) 5年間 200億엔
- '81: 半導體(美, California州) 200億엔
- '82: 半導體(Singapore) 14億엔
- '82: 電算機(美, Massachusetts州) 27億엔
- '84: 通信機(美, Oregon州) 5年間 150億엔

□ 富士通

- '84: 光通信(美, Texas州) 數10億엔
- '84: Amdhal株買入(美, California州) 463億엔
- '84: 半導體, 磁氣Disk(美, Oregon州) 3年間 400億엔

□ 三菱電機

- '83: 半導體(美, North Carolina州) 70億엔
- '83: Braun管(Canada) 36億엔

□ 沖電氣工業

- '84: 電子交換機(美, Georgia州) 24億엔

□ EPSON

- '84: 情報機器(美, Oregon州) 未定

□ 東芝

- '80: 半導體(美, California州) 32億엔
- '82: 半導體(西獨) 50億엔

□ 日立製作所

- '84: 半導體(美國) 3年間 100億엔
- '84: 通信機(美國) 數10億엔

4. 貿易摩擦 回避를 위한 進出

半導體, Computer, 通信機輸出은 작년 下半

期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도 前年同期比 50% 增加趨勢를 지속하고 있다. 그중 50~60%가 美國으로 나가는 것이다. 美國은 아직 LSI 등의 供給力 부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日本으로부터의 High Technology部門 輸出急増을 문제삼는 움직임은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84년의 日本의 對美貿易 黒字幅이 4~9월에만도 史上 最高인 230億弗에 달하고 있어 High Technology 部門이 全體貿易不均衡의 상장으로 거론될 우려가 짙고 그時期는 大統領選舉後인 年末에서 來年初가 아니겠느냐는 觀測이 나돌고 있다.

現地生産은 日本의 對美輸出의 一部를 代替하여 그 增加勢를 누그러뜨리고 雇傭, 稅收 등 現地奇與로 摩擦을 회피하던가 완화하는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製品販賣에 따른 Software比重 늘어

製品에 占하는 Software比重이 높아지고 있음도 High Technology 部門의 海外投資를 促進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Computer는 물론 최근에는 電子交換機 등의 通信關聯機器도 利用技術을 미리 製品에 포함하여 納品되는 것이 보통으로 되고 있다. Software는 國家 또는 地域에 따라 혹은 企業에 따라 相異하다. OEM輸出의 경우와는 달리 自社Brand로 市場을 開拓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現地에서 Software需要를 파악하고 設計·製造하는 據點이 필요해진다. 販賣로 그치거나 A/S附販賣方法으로 족했던 鐵, 自動車 등 지금까지의 主役商品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High Technology商品의 특성이 海外投資를 加速화시키고 있는 면도 있다.

5. 製品販賣 投資를 위한 産業基盤

日本의 High Technology部門이 海外投資에서 東南亞를 비껴가는 이유 중에는 High Technology 部門工場의 自動化·無人화가 있다. 尖端部門製品은 高度의 品質管理가 요구되며 製造·設計·檢査 등 모든 工程의 自動化가 불가피하다. 工場의 自動化-FA화가 進展되어 無人化될수록 製品Cost에 占하는 人件費比重은 낮

(P. 111로 계속)



최근 접수된

圖書資料

도서명	발행처	발행일
自動化技術 (10月號)	工業調査會	84. 10. 1
Computer Digest (10月號)	(株)ティ・エー・シー企畫	84. 10. 10
電子技術 (10月號)	日刊工業新聞社	84. 10. 1
電子 (9月號)	日本電子機械工業會	84. 9. 1
電子工業月報 (9月號)	日本電子工業振興協會	84. 9. 10
データ通信 (9月號)	情報研究出版會	84. 9. 1
省力と自動化 (10月號)	(株)オーム社	84. 10. 1
最近輸入規制情報	韓國貿易協會	84. 9
BYTE	A McGraw - Hill Publication	84. 8
교육용 집적회로 칩의 개발	과학기술처	84.
Portable Computer 주변기기	"	84.
電子材料 (10月號)	工業調査會	84. 10
경제동향해설관	한국능률협회	84. 9. 25
83/84 Buyers Guide	Taiwan	84.
상사중재법규집	대한상사중재원	84. 9
電機 (10月號)	日本電機工業會	84. 10
Show Magazine	Taipei Taiwan	84. 10
무역관계 법규집	한국무역협회	84. 9
에너지 절약 기술정보	산업경제연구원	84. 9

.....P. 61에서 계속.....

아진다.

지난날 電機業界는 값싼 人件費 때문에 東南亞에 진출했으나 製品의 High Technology化와 工場無人化에 따라 반대로 高度 FA System을 補修·維持·改良할 수 있는 質 높은 技術者와 産業基盤이 필요해진다. 그 조건이 구비된 곳은 日本을 제외하고는 美國과 歐洲밖에 없다.

東南亞 各國의 賃金上昇이 이 地域에 대한 投資魅力을 減少시키고 있는 현저한 例로서 Asian 중 가장 工業化가 進展된 Singapore를 들 수 있다. JETRO 調査에 따르면 Singapore은 資本集約型 産業에서 高度技術集約型 産業으로의 轉換을 위하여 人爲的인 高賃金 政策을 채택하

기 시작하였다. High Technology 部門의 誘致나 育成에 注力하겠다는 政策이나 이를 위해서는 High Technology 産業을 지탱할 만한 基盤整備가 先決되어야 한다. High Technology 産業基盤整備란 鐵道, 道路, 港灣 등의 Hardware 造成이 아니라 FA, OA의 周·低邊産業으로서 Software 産業을 育成함을 말한다.

日本의 High Technology 産業의 海外投資가 先進國에만 集中하고 있음은 長期的으로 보아 副作用도 予見되므로 開途國의 Software 産業 育成支援을 통한 開途國과의 協力基盤造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나오고 있다.